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

-한의원을 중심으로-

유종향*, 이준혁*, 박기현, 진희정, 장은수

한국한의학연구원

Survey for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Traditional Medical Market

Jonghyang Yoo*, Junhyuk Lee*, Kihyun Park, Heejeong Jin, Eunsu Jang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oth of two author contributed to this article equally

Abstract

Objectives: This research aims to know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traditional medical market to provide sources in setting a development strategy and making a policy on the traditional medicine

Methods: This research categorized 11,611 clinics registered in telephone directory as of 2008 by region and some clinics were extracted with simple random method. The inquiry was made wit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on the base of frequency.

Results: 1. The number of the employee in a clinic were slightly decreased from 2.9 in 2005 and 2006 to 2.8 in 2007. That of the patients also showed a downward tendency from 11,811 in 2005 through 11,716 in 2006 to 11,344 in 2007. 2. An annual turnover in a clinic amounted to 257 million won in 2007 from 232 million won in 2005 through 245 million won in 2006. 3. Approximately 92% of the responses made a negative diagnosis on the traditional medical market and 21% of responses indicated the overall economic recession as a primary reason in their opinions. 4. About 29% of responses presented the extension of medical insurance on traditional medicine as a prior policy.

Conclusions: Based on the survey, the prospect of traditional medical market is positive, but the effort of the people in traditional medical system and the systematic support from government are required to activate the stagnated traditional medical market.

key word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Traditional Medical Market, Current Status

1. 서 론

보건복지부·한의학연구원은 한방산업을 ‘한방과 관련된 모든 생산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는 한방산업을 ‘한의학 의료기술 및 한약을 바탕으로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

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통의료 산업은 한방 산업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 그러나 협의의 규모로 볼 때 한방산업은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2006년 기준 세계 전통시장규모는 1,8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22%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50년엔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²⁾ 전 세계 보완대체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 시장은 급성장하

· 교신저자: 장은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82-42-868-9291, Fax : +82-683-9480, E-mail : esjang@kiom.re.kr

· 투고 : 2010/02/26 심사 : 2010/03/19 채택 : 2009/03/23

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긴 하나, 보완대체의학 이용자 수가 1990년에 전체 인구의 33.8%에서 2002년 62.1%로 크게 증가하였다³⁾.

우리나라는 이미 오랜 전통의학의 역사를 통해 전통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방산업의 연구개발에 유리한 위치라 할 수 있다.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의료보험의 경우 1987년 2월에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래 침, 뜸, 보험약재로 그 범주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한방 자동차 보험, 한방물리요법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한방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07년 의료보험 시장의 경우 한의원이 12,034 억 원이고 한방병원이 1,039억 원으로 전체 의료시장이 323,892억 원 중 4.04%를 차지하고 있다⁴⁾.

전통의료 서비스 현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그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나, 통계청에서는 한방 의료기관 및 종사자의 파악만 조사하고 있고,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는 의료보험 이용자 및 보험 금액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어, 전반적인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축적되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기초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태라 산업의 현황과 미래 예측을 통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변화 추이를 관찰함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6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그 연속선상에서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시장 현황에 대한 한방의료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를 추가하여 이전 연구에 비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초통계 생산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전통의료 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연관 분석과 향후 한방 의료서비스 및 관련 분야의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대상자 선정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2008년 현재 사업체 전화번호부에 한의원으로 등록된 11,61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모집단을 지역별로 층화하여 기관명을 이름순으로 나열한 목록을 단순랜덤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소속이 부적절한 2명을 제외하고 338명의 한의원 종사자를 표본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조사에 사용된 설문(*별첨)은 응답자의 인적사항 및 소속기관에 관련된 일반 문항 17개, 경영관련 문항 9개, 전통의료시장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문항 3개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및 통계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설문항목별 표본 수는 결측치에 따라 상이하였다. 결측치 이외에도 설문항목에 따라 표본평균을 기준으로 95% 신뢰 구간에 유의하지 않은 설문결과를 나타낸 표본은 제외하였으며, 연속적인 동일 설문항목에 대한 결측치는 전체 결측치로 간주하여 설문항목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 총 338명의 직위별 분포는 원장 334명(98.8%), 과장 1명(0.3%) 기타 3명(0.9%)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련 정도에 따른 분포는 일반의 비중이 84.3%(285명) 전문의 비중이 7.7%(26명) 인정의 비중이 5.0%(17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총 진료경력은 13.2년 정도이며, 세부전공별로는 한방내과 36명(10.7%), 침구과 24명(7.1%), 사상체질과 14명(4.1%), 한방부인과 11명(3.3%), 한방재활과, 외관과, 한방신경정신과가 각각 6명(1.8%)였으며, 기타 37명(10.9%) 없음 135명(39.9%)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95명(57.7%)이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석사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43명(12.7%)과 95명(28.1%)이었다.

소속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자형태가 326명(96.4%)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8곳(2.4%)만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소속기관의 회사형태별 비중은 개인사업자가 93.2%(315

명)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공동개원(2.6%), 재단법인(0.6%) 등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providers in Traditional Medical Clinics

Items	Sub Items	Number	Ratio(%)
Position	Director	334	98.8
	Manager	1	0.3
	Others	3	0.9
Training Course	General Practitioner	285	84.3
	Specialist	26	7.7
	certified Doctor	17	5.0
	No Response	10	3.0
Education	Bachelor	195	57.7
	Master	43	12.7
	Doctor	95	28.1
	No Response	5	1.5
Speciality	Internal Medicine	36	10.7
	Acupuncture & Moxibustion	24	7.1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4	4.1
	Gynecology	11	3.3
	Ophthalmology and Otorhinolaryngology	6	1.8
	Rehabilitation Medicine	6	1.8
	Neuropsychiatry	6	1.8
	Pediatrics	1	0.3
	Others	37	10.9
	None	135	39.9
	No Response	62	18.3
Management	Franchise	8	2.4
	Personal	326	96.4
	No Response	4	1.2
Company Type	Individual	315	93.2
	Partnership	9	2.7
	Foundation	2	0.6
	Others	4	1.2
No Response	8	2.4	
Total		338	100

2. 전통의료 서비스 관련 설문 결과

1) 전통의료 서비스 경영 관련 사항

한의원의 연평균 종업원 수는 2005년과 2006년에 2.9명이었다가 2007년 2.8명으로 감소하였다. 연평균 내원 환자 수는 2005년 11,811명에서 2006년 11,716명, 2007년 11,344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연간

의료보험 청구금액은 2005년 8천 9백만 원에서 9천 5백만 원, 1억 1백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 상승하였고, 매출액은 2005년 2억 3천 2백만 원, 2006년 2억 4천 5백만 원, 2007년 2억 5천 7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Table 2).

Table 2. Current Status on Traditional Medical Market

Year	Annual Employees Average*	Annual Patients Average*	Annual Insurance Sale†	Annual Total Sale†
2005	2.9	11,811	8.9	23.2
2006	2.9	11,716	9.5	24.5
2007	2.8	11,344	10.1	25.7

*Unit: Person, †Unit :Ten million won

2007년 기준으로 재무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8.2%, 재료가 18.5% 수준이며, 장비구입비와 임대료는 12.2%, 순이익은 37.9%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 전통의료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 설문 결과

‘한방의료 기관 종사자들은 현재 한방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응답’ 27명, ‘보통’ 1명을 제외한 310명(91.7%)이 침체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방시장의 침체 이유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경기침체’가 100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신뢰부족’72명(15%), ‘기술정체’65명(14%), ‘홍보부족’48명(10%), ‘건강기능식품의 확대’41명(9%), ‘시장 포화’33명(7%) 등을 꼽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부정적인 언론’, ‘양방의 견제’, ‘제도적 문제점’ 등이 있었다(Figure 1-A).

‘앞으로 한방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설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7명(40.7%),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81명(37.9%)이었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46명(21.5%)이었다(Figure 1-B).

‘한방서비스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의료보험 확대’가 101명(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홍보를 통한 신뢰회복’이 76명(22%)이었으며, 그밖에 의견으로는 ‘약재관리나 진단 표준화’ 20명(6%), ‘기술개발’ 15명(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Figure 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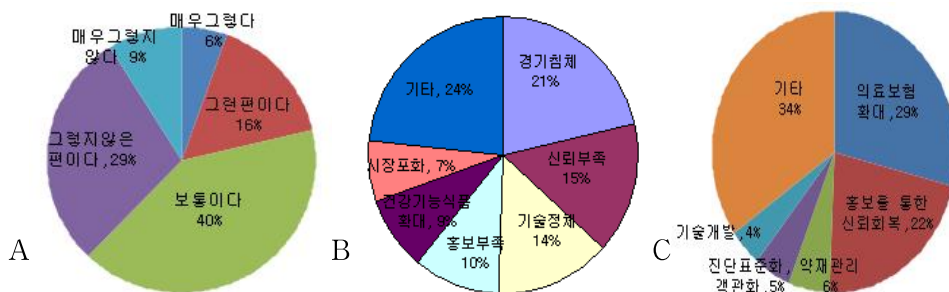


Fig. 1. Healthcare providers' prospect in tTraditional medical market

A: The reason for depression of traditional medical market

B: The prediction of traditional medical market revitalization

C: Supporting policies for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edical service

IV. 고 찰

2007년 말 현재 일반 병원대비 한방 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의 20.8% 정도로 이는 2005년 19.9%보다 약간 상승하였고, 2007년 말 현재 한방병원을 포함한 전국 한방 의료기관 수는 총 11,001개로 2004년 9,350개, 2006년 10,436개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개인한의원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4년 9,196, 2006년 10,294개, 2007년 10,859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07년 현재 전체 한방 의료기관의 98.7%를 차지하여 소규모의 개인 한의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방병원은 142개로 소수에 불과했다⁵⁾. 본 연구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한방 의료기관은 소규모로 한의원 의료진은 원장 1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의학 시장이 소규모 한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한의원 고용인원은 2007년에 2.8명으로 1998년 평균 2.35명에 비해서 다소 많았으나, 2003년 2.8명에서 2004년 3.1명으로 증가한 관점에서 보면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더불어 한의원 내원환자 역시 2005년에 비해 매년 줄어들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2005년 7930억 달러로 세계 11위에서 2008년 9470억 달러로 세계 15위로 추락하는 등⁶⁾ 국내의 경제 위축이 심하고 이런 경제 악화가 한의원 내원 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자 감소가 한의원에서 인력 고용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

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관련 지표 관련해서 일반수입과 보험수입을 포함하여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한방 의료기관의 수입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한방의료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왔음을 의미한다⁷⁾. 최근 보험수입 대 일반 수입을 살펴보면 보험 비율은 30.9%에서 39.3%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일반수입은 69.1%에서 60.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비율이 증가한 이유로는 의료보험 수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3~2.9%씩 꾸준히 상승하였고⁴⁾, 이에 따라 의료보험 수입도 매년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일반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한방 의료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한의원 운영방식이 보험수입 중심으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험매출이 늘고 일반매출이 줄어드는 상황과 관련지어 한의원 종사자들이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현재의 한방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표준화 부족 등 기술이 정체’되어 있으며, ‘한의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한 등의 연구⁸⁾에서 전통의료의 문제로 한방 의료계 내부의 표준화 미비와 한방 의료의 특성에 따른 과학성에 대한 정의 부재가 지적된 것과 일부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한방 의료의 제 자리를 잡기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 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록 일반인들이 ‘한의학적 치료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점은 ‘기술이 정제되어 있다’는 한의사들의 설문조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조사⁹⁾에서 ‘한학을 신뢰한다’는 문항이 5점 만점에 3.9점으로 여러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문항이 3.7점을 보여, 일반인들이 한의학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주 소비층이 한의학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방 의료기관 종사자들 및 한의학 관련 국가기관 연구자들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한방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보통으로 응답하여 현재와 비슷함을 예상하였으나,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 견해보다 앞서고 있어 향후 한방시장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방시장 활성화 노력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확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홍보를 통한 신뢰회복’이 21%로 뒤를 이어 실제 한방의료 기관 종사자들은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확대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방물리요법이 의료보험 급여를 받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실제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진찰, 입원 등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었으나, 한방의료의 급여 범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보장성 확대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 정제 상태

를 면치 못하고 있고¹⁰⁾, 고가의 한방 의료비, 낮은 의료 보험 혜택은 의료 소비자들이 한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한의학의 단점으로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⁹⁾, 국민들의 의료 욕구에 부합하는 합당한 한방의료 보험 정책이 절실하며, 한의계 내부에서도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 338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006년과 2008년 전국 한의원에 소속된 한의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연평균 내원 환자 수는 2005과 2006년도에는 2.9명에서 2007년도에는 2.8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의료보험 청구금액은 2005년에 8천 9백만원, 2006년 9천 5백만원, 2007년에 1억 1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05년에는 2억 3천2백만원, 2006년 2억4천 5백만원, 2007년 2억5천 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3. 한방의료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현재 한방 시장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방의료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10명(91.7%)으로 대부분

분을 차지하였고, 그 이유로 ‘경기침체’가 21%가 가장 많았다.

4. 향후 ‘앞으로 한방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한방서비스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확대’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추후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보험 확대 등 정부의 제도적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Grant No. K10070).

참고 문헌

1. 보건복지부·한의학연구원. 국내 한방산업육성방안과 경제성 분석 연구. 2004.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orld Bank를 이용한 한의학 R&D 중장기 발전방안 기획연구. 2006.
3. David M. Eisenberg, MD; Roger B. Davis, ScD; Susan L. Ettner, PhD; Scott Appel, et al.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JAMA, 1998 ; 280 : 1569-75.
4.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7.
5. 장은수, 유현주, 김효정, 이시우.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약을 위한 조사연구 -전국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 ; 13(3) : 143-9.
6. 장인성. 한국의 실질 GDP 장기예측. 국회 예산 정책처. 2007 : 8-9.
7. 대한한 의사협회.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 연구보고서. 안건회계법인. 1999.
8. 한동운, 김향자, 윤태형, 우혜경. 우리나라 한방의료의 현황과 과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5 ; 9(1) : 77-89.
9. 한국한의학연구원. 일반인 대상 한방의료 이용실태 설문조사. 2008.
10. 김진현, 김윤희.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의료 급여확대방안.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7 ; 11(1) : 139-51.

*** 별첨**

1.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 위	<input type="checkbox"/> 원장 <input type="checkbox"/> 과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분야(진료)경력	총 진료경력(년) 체질의학을 진료에 활용한 기간(년) * 체질의학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입
수련과정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의 <input type="checkbox"/> 전문의 <input type="checkbox"/> 인정의(협회) <input type="checkbox"/> 인정의(학회)
학력구분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전공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상체질과 <input type="checkbox"/> 한방내과 <input type="checkbox"/> 침구과 <input type="checkbox"/> 한방부인과 <input type="checkbox"/> 한방소아과 <input type="checkbox"/> 외과과 <input type="checkbox"/> 한방재활의학과 <input type="checkbox"/> 한방신경정신과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의체질	<input type="checkbox"/> 태양인 <input type="checkbox"/> 태음인 <input type="checkbox"/> 소양인 <input type="checkbox"/> 소음인 <input type="checkbox"/> 모름
진료영역	<input type="checkbox"/> 전통한의학 <input type="checkbox"/> 체질의학 <input type="checkbox"/> 전통한의학 및 체질의학 동시진료(체질의학 진료비중 %)

2. 소속기관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속기관유형	<input type="checkbox"/> 병원(대학병원) <input type="checkbox"/> 한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속기관지역분포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소속기관설립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7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7~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운영형태(개인병원운영시)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 <input type="checkbox"/> 독자형태
기관규모	<input type="checkbox"/> 규모(실병수 기준 평) <input type="checkbox"/> 건물형태(층 건물층 층)
회사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합자(공동개원)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병(의)원 전문분야	<input type="checkbox"/> 전통한의학 전문 <input type="checkbox"/> 체질의학 전문 <input type="checkbox"/> 병(의)원내에 체질의학 전문 진료과 운영
기관의주당진료일수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2일 <input type="checkbox"/> 3일 <input type="checkbox"/> 4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7일
진료시간	: 에서 : 까지 (ex. 09:00에서 18:00까지)
휴일진료유무	<input type="checkbox"/> 공휴일 진료 <input type="checkbox"/> 일요일 진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3. 경영관련 설문입니다.

설문내용 및 구분	2005	2006	2007				
1.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만원)							
1.1 매출액 중 체질의학 관련 매출 비중은(%)							
2. 연평균 종업원수(명)							
3. 연평균 일일 내원 환자수(명)							
4. 운영 병상 수(외래용(개) / 입원용(개))	/	/	/				
5. 연간 의료보험 청구금액(천만원)							
5.1 연간 의료보험 청구금액중 체질의료서비스 관련 매출이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5.2 의료보험 청구금액 대비 약매출 비중(%)**							
6. 일일평균 조제약 수(2007년 제 기준)							
7. 총 종업원 중 한의사수(2007년 기준, 명)							
8. 한의원 관련 매출금액(현재 기준)							
9. 매출의 항목별 비중(2007년 기준)	인건비 %	재료비 %	장비구입/임대비 %	기타비용 %	순이익 %	합계 %	100%

* 총 보험금 청구금액 중 실제로 체질의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 비중입니다. 즉, 체질의료행위로 청구한 보험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체질의료 행위를 한 결과의 비중입니다.

** 의 예) (월간/연간 상관없음)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약매출이 60만원이라면 60%

설문내용 및 구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앞으로 한방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재 한방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한방서비스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